

코로나 19 팬데믹 시대 속 여성의 위기와, 돌봄에 대한 목회신학적 성찰 : 기독교 교육학적 접근*

이수영(호서대학교/강사)

js55379@gmail.com

한글 초록

본 연구는 유엔 사무총장이 “코로나 19는 여성의 얼굴을 한 위기이다” 라고 언급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하여 가장 큰 위기와 고통,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의 상황을 통계자료들과 학술연구결과들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 문화적, 심리 정서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이 문제들이 어떻게 “돌봄”에 관련되어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과 위기에 대한 교회의 한 대응으로서 “돌봄윤리”와 “돌봄목회”를 통한 목회신학적 성찰을 도모하였다. 교회의 “돌봄목회”는 교회내의 개인적 돌봄 뿐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 정치, 생태계적 이슈들에도 확장되며, 교회는 공공성을 가지고 재난과 관련된 이러한 이슈들에 응답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닌다. 나아가 교육목회를 통해, 돌봄과 불평등에 대한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변화와 디아코니아, 교회공동체의 사랑의 돌봄이 격려되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여성, 성불평등, 돌봄, 돌봄윤리, 돌봄목회, 목회 돌봄, 기독교교육

* 2021년 한국기독교교육학회 여성분과 콜로키움 발표논문

I. 들어가는 말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부터 발발한 코로나19 팬데믹은 매우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면서, 2021년 10월 19일,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40,940,937명, 사망자 수는 4,903,911명인 상황이다(WHO Coronavirus Dashboard). 나아가 확진자, 사망자 숫자의 규모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코로나 19가 가져온 사회, 정치, 경제, 교육, 문화의 전방위적 지각변동은 코로나종식 이후에도 큰 여파로 지속될 것이라 전망된다.

역사속에서 재난은 그 자체가 극복해야할 고난과 어려움이면서, 한 사회의 드러나지 않던 제도적 모순과 한계점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곤 했다. 그렇다면, 코로나 19 팬데믹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해변에 드러내놓은, 한국 사회와 세계속에 침전되고 감추어졌던 모순과 한계점들은 어떤 것들이며, 우리는 어떤 변화를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인가? 광범위한 영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해, 본 논문은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가 “코로나 19는 여성의 얼굴을 한 위기이다” 라고 언급했듯이, 코로나 19로 인해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여성”에 관련한 영역에 주목하고 그 구체적인 위기의 상황들을 살펴본 후, 이에 대해 기독교 교육학적으로 어떤 목회신학적 대응이 필요한지를 “돌봄목회”의 개념과 적용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속 여성들이 당면한 위기

1. 경제적 불평등과 여성실업률 문제

가장 먼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팬데믹은 극한 가난속에 있는 이들에게 매우 치명적인 위기라는 사실이다. 여기서 말하는 극심한 가난(극빈,

extreme poverty)은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수입, 물과 음식, 주거지 등이 부족하거나 충분한 획득이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코로나 19는 전 세계적으로 분쟁과 경제적 불평등, 가속화되는 기후 위기등의 이유로 이미 붕괴되어 가고 있던 전세계 식량체계를 악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극심한 빈곤과 굶주림에 몰아넣으며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2021년 말까지 극빈곤에 처한 인구는 약 7억 4,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코로나 19 이전보다 1억명이 증가한 상황이다(Oxfam media briefing, 2020, 2021; The World Bank, 2021). 코로나 19로 인해 심화되는 가난과 빈곤의 문제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최근 “팬데믹 위기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고 (ILO, 2021), UN 여성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팬데믹으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최소 4억3천5백만명 이상의 여성과 소녀들이 극빈에 처하여 하루 생계비 1.9달러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남성에 비해 여성들의 식량안보 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UN Women, 2020; 2021).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이런 극빈자들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직면한 어려움이다. 엄격한 이동제한, 시설운영제한, 노동시간 단축등의 정책들과 함께 세계 경제활동은 3.5% 감소했고, 2020년 전 세계적으로 3,300만명의 노동자가 실직하였다(Oxfam media briefing, 2021). 이런 상황에서 고용손실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상황을 니콜 메이슨(C. Nicole Maison) 여성정책연구소(the institute of Women’s Policy Research) 소장은 ‘여성(She)’과 ‘경기 침체(recession)’의 합성어인 ‘She-cession’이라고 표현했다. 코로나 사태의 방역정책상 숙박, 음식, 여행, 오락, 교육 등 서비스업이 치명적 손실을 얻었는데, 이들 업종에 여성노동자 수가 대부분이며, 또 한편 저임금으로 코로나의 감염에 가장 크게 노출이 되는 건강과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는 이들 중 약 70%도 여성인 상황이다(김난주, 2020; 여성가족부, 2021).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기간에 실직한 남성의 비율은

3.9%인 반면 여성은 5%였으며, 2020년 전세계 여성의 소득손실은 최소 8,000억달러로 추정된다(Oxfam international, 2021; Oxfam media briefing, 2021).

한국의 경우 팬데믹 위기 초기인 2020년 3월에 핵심노동연령(25~54세)의 여성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54.1만명 감소하였고 (남성은 32.7만명 감소), 2020년 10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여성고용동향에 따르면 9월 여성취업자의 감소폭은 남성취업자 감소폭의 3배 이상이었다(김지연, 2021; 김현미, 2020; 여성가족부, 2020).

또한 전세계적으로 61%의 사람들이 비공식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중 40%가 여성이다. 이 직종들은 고용을 보장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 등 정규직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매우 큰 타격을 입었다(Oxfam media briefing, 2021). 한국의 경우, 고용안정성이 낮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임시직으로 대거 이동하거나 일자리를 잃었는데, 통계청의 2020년 3-8월 고용동향 보고에 따르면, 2020년 4월 한 달에만 37만명의 임시직 여성이 일자리를 잃었고, 이는 임시직 실직 전체의 60%의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3-4월 일시휴직자 119만 5천명 중에서 여성이 77만 3천명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하였다(임윤옥, 2020).

2. 코로나 19가 초래한 돌봄의 부재와 필요상황에서 드러난 성적 불평등 문제

여성의 실직과 관련하여, 위에서 서술된 여성의 해고와 강제휴직과 같은 외부적 상황과 더불어, 한편 많은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게 된 내적상황이 공존하는데, 바로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급작스럽게 발생된, 각 가정안에서의 돌봄의 부재와 위기상황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학교와 공적 돌봄시설이 폐쇄되면서 가족구성원을 보살피는 돌봄이 고스란히 가족의 몫이 되었고, 그 가운데 돌봄의 책임이 거의 여성에게 부

가되는 성불평등 상황이 뚜렷이 나타난 것이다(김현미, 2020; Lee, Chin, & Sung, 2020).

이는 비단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나타난 현상인데, 보스턴 컨설팅그룹에서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미국, 영국,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에 거주하는 3,000명의 직장을 가진 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매주 평균 15시간 이상을 집안일을 하는데 더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Krentz et al., 2020). 한국에서도 김영란(2020)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확산 이후 맞벌이 여성의 40.7%와 외벌이 여성 38.7%가 코로나 이전보다 가사노동을 더 부담하였다고 보고되었고, 서울시 서북권 직장맘지원센터의 조사는 직장맘의 48.6%가 자녀를 돌봐야 하는 이유로 퇴직하였음을 보고한다(류인하, 2020).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9년보다 증가한 2020년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22만 2천명이고 이 가운데 72.1% (16만명)이 가사육아 상태인데,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자녀 돌봄 공백 때문에 가중된 여성들의 부담을 대변하고 있다.

이러한 성불평등이 돌봄의 부재와 필요속에 극명히 나타나는 상황속에서, 자녀와 노약자를 돌보고 가사를 보살피는 돌봄을 여성만의 성역할로 당연히 여기고, 그러면서 무임금으로 실행되는 돌봄노동의 가치는 사회적으로 가치절하 되는 사고방식이 사회에 만연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어떻게 재난의 상황에서 여성들에게 불공정하고 부당하게 작용하는지를 이번 코로나 19 위기를 통해 명확히 인지하고, 이러한 인지를 공유하여, 사고의 전환과 더불어 이러한 성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이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에서 실행되어야 할 급박한 필요가 대두되는 시점이다.

3. 코로나 19가 초래한 정신건강의 문제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초래된 정신적, 심리적 건강의 문제는 ‘코

로나 블루'(Corona Blue)라는 신조어를 등장시켰다. 코로나 19가 강력한 감염력으로 전세계를 순식간에 휩쓸면서, 사회적 고립정책, 실직과 경제적 어려움, 일터와 학교 가족에 얽혀 나타나는 새로운 책임갈등과 부담 등은 거대한 규모로 세계인들에게 심리적 스트레스와 염려, 우울의 경험을 유발하였음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일관성 있게 보고되고 있다(Brooks et al., 2020; Every-Palmer et al., 2020; González-Sanguino et al., 2020; Holmes et al., 2020; Lian & Yoon, 2020; Petzold, et al., 2020). 한국 국민에게도 코로나 19는 심각한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는데, 한국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가 2020년 세 번에 걸쳐 실시한 국민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40-48%의 참가자가 정도 이상의 불안, 약 42-49%의 참가자가 정도 이상의 우울 증상을 보고하였다(보건복지부, 2021).

코로나 19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보고되는 사실 중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우울, 불안, 두려움, 외상성 고통 등 부정적인 심리 정서적 영향력이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문정화·김수진·성기욱, 2021; 보건복지부, 2021; Oxfam survey, 2020; Sain & Dey, 2021). 이는, 단순히 여성이 감정적이나 심리적으로 남성보다 취약해서라기 보다는, 팬데믹 시국에 여성들이 갑작스럽게 맞닥뜨리게 된 과중한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으로 인한 심신의 부담과 피로, 그 위에 실직, 임시 휴직, 소득 감소등의 경제적 요인, 역할충돌로 인한 내적 외적 갈등, 경력단절등과 관련한 염려, 가족의 건강에 대한 염려와 불안, 가족갈등과 가정폭력, 원치 않는 임신 등의 상황에 대한 여성들의 자연스런 정서적 반응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할 것이다.

이 가운데, 특히 한국사회에서 유의하여 바라보아야 하는 현상은, 20-30대 여성들의 자살률이 급증한 것이다. 중앙자살예방센터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자살로 사망한 여성의 숫자(잠정치)는 1,924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7.1% 증가했는데, 이는 남성이 6.1%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자살시도도 크게 늘어 2020년

상반기에 전년대비 35.9% 증가했는데, 특히 20대는 전년대비 80.5%, 30대는 87.2%로 치솟았다(김서현, 2020). 통계청의 2020년 사회통계에 따르면 청년기 여성의 자살충동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21.5%)이 가장 많았고, '실업·미취업 등 직장문제'(18.5%)가 그 뒤를 따랐다(연합뉴스, 2021).

이러한 청년 여성들의 자살문제를 단순히 코로나 19의 영향이라고만 단정할 수는 없는 이유는 2021년 보고된 통계청의 자살률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체 자살자는 15.2% 감소했지만, 반대로 20대는 35.3% 자살률이 증가했다. 이 중 여성 자살자는 64.5%나 급증했는데, 이는 모든 연령대의 남녀를 통틀어 자살 증가율이 가장 높은 현상을 보여준다. 특히 2018년부터 최근 3년동안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58.4%로 크게 증가하였다(백유진, 2021). 그러므로, 20대 여성의 자살률의 증가는 최근 계속되던 추세이지만, 코로나 19로 인하여 가속화 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같은 현상은, 한국사회에서 여성 사회 초입생들이 뛰어드는 취업전선에서 남성선호의 경향,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서 일하게 되는 현실과 실직이나 미취업 등 고용불안, 낮은 자아존중감, 경제적 어려움을 마주하며 받게되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반영한다(김현미, 2020; 홍혜은, 2020).

한편, 이러한 통계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예방사업의 주요 정책대상이 50대 중장년층 남성과 60대 이상의 여성,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젊은 여성들이 고통스럽게 직면하고 있는 고용 시장에 만연한 성불평등에 한국사회가 얼마나 둔감한지 보여준다(여성신문, 2020). 그러므로, 경제적 성불평등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에 대한 사회 인식을 높이고, 개선을 촉구하며, 구조적인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는 것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4. 가족갈등과 가정폭력의 문제

코로나 19 팬데믹의 여러 영향중, 부정적인 심리 정서적 영향력과 사회

봉쇄의 결과로 나타난 여성에 대한 큰 위협이 바로 사회구조적이고 문화적인 요소를 내포한 가정폭력의 문제이다. 코로나 19 팬데믹의 상황에서 특별히 가정폭력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감염병 특성상 방역을 위해 가정에 머물기를 권고하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가정이 폐쇄적인 구조가 되어 가정폭력의 위험성을 급증시켰기 때문이다. 유엔은 이를 ‘새도우 팬데믹(shadow pandemic)’으로 규정하고 각국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다.

2020년과 2021년에 각국에서 가정폭력의 급증을 보고하는 여러 언론 보도와 연구조사들이 있었는데, 먼저 WHO의 유럽지역 디렉터인 Hans Kluge는 2020년 4월 배우자의 폭력에 대해 긴급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0%가 증가했다고 언급했고(UN, 2020), 태국과 페루에서도 국가봉쇄기간동안 거의 두배이상의 도움요청이 있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Handley, 2020; Vranda, 2021). 중국에서도 2019년에 비해 2020년 가정폭력의 숫자가 두배 혹은 세배로 증가하였고(Zhang, 2020), 인도에서도 국가 봉쇄기간동안 성폭력이 두 배 이상 늘었으며(Mansharamani & Kishor, 2021),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들, 이란,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프랑스, 독일,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브라질 등에서도 비슷한 상황들이 보고되었다(Chipare, 2021; Ebert & Steinert, 2021; Peraud, Quintard, & Constant, 2021; Yari et al., 2021).

그런데, 한국의 경찰청 자료는 가정폭력에 있어서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가정폭력신고접수 건수가 전년 동기간 신고건수에 비해 오히려 4.9%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하여 한국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정폭력이 오히려 감소했다고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것에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폐쇄적인 상황이기에 피해자들이 신고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나 매체를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 가정폭력 상담소 이용현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었던 기간에, 강화되었던 시기보다 2배 이상으로 신고가 증가한 것이 그 증거가 된다(송아영, 2021).

나아가 가정폭력과 더불어 함께 고려되어야 할 측면은,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에 여성을 향한 성, 재생산 건강의 측면에서의 위협이다. 봉쇄 조치로 인해, 재생산에 관련된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모자건강이나 재생산에 관련된 기본적 권리가 위협을 받아왔으며(Comas & Carreras, 2020; UNFPA, 2021), UN Women이 2021년 10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팬데믹이 발발한 첫 해에 약 140만건의 원하지 않은 임신이 발생하였다. 또한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등의 피해와 이른 연령의 아동결혼이 증가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젠더기반폭력이 쉐도우 팬데믹에 포함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윤영, 2021). 그동안 국제사회는 오랜시간동안 빈곤퇴치와 성평등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위에서 다양한 각도로 살펴보았듯이, 코로나 19 팬데믹은 그동안 이루어 왔던 성과를 퇴보시키며 수많은 여성들을 위기 속에 몰아넣었으며, 이는 향후에도 국제사회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이제까지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속에 여성들이 마주한 위기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처럼 불평등과 “돌봄”의 필요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목회적 고민과 성찰을 할 수 있는가? 기독교 교육학적 관점에서는 어떤 통찰과 접근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제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돌봄”과 관련되어 나타난 여성들의 다양한 위기에 대하여, “돌봄 윤리”와 “돌봄 목회”를 통한 목회신학적 성찰을 통해 교회의 대응점들을 모색하고, 기독교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적 제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Ⅲ. 돌봄에 대한 목회신학적 성찰과 기독교 교육에의 제안

그동안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으나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을 통하여 주목을 끄는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노출된 사회적 영역이 바로 ‘돌봄’의 영

역이다. 오랜 시간동안, 돌봄은 사적인 영역인 가정에서, 아이를 기르고, 음식을 만들고, 세탁과 청소 등의 노동을 통해 가족을 돌보는 재생산 활동들이자 필수적인 반복노동으로서, 주로 여성들의 의무로 여겨져 왔다(허라금, 2018). 이처럼 돌봄이 여성에게 부여된 이유를 보부아르(1996, 89)는 가부장제에서 찾았는데, 돌봄은 사회적으로 가치없는 일이기애 가부장제의 종속적 그룹이었던 여성들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돌봄은 오랜 가부장적 역사속에서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졌기에,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아래에서 경제적 생산영역의 일은 남성에게, 돌봄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 나아가 최근에는 개발도상국가의 저임금 여성인력들에게 맡겨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행하여져 왔다.

그러나, 현대 여성주의가 제기한 ‘돌봄윤리’를 통해 ‘돌봄’의 의미에 대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정의들이 내려지고 있으며, 나아가 돌봄윤리는 현대사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도덕 패러다임으로 제시되고 있다. 돌봄의 윤리는 캐롤 길리건(Carol Gilligan)의 유명한 저서, “다른 목소리로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에서 제시된 개념이다. 길리언에 따르면, 철학사에서 보편적 윤리학은 정의, 규칙, 평등, 자율성, 공정성, 독립성 등이 강조되는 ‘정의윤리(Ethics of Justice)’였고 이는 남성의 윤리학인 반면, 여성은 보살핌, 책임, 관심, 유대, 인간 사이의 관계, 상호 의존성, 맥락성, 감정이입, 공감 등을 특징으로 하는 ‘돌봄 윤리 (Ethics of Care)’를 보인다는 것이다(김동희, 2001; 이정은, 2009; Gilligan, 1994). 남성적인 보편윤리에서는 이성적이고 자율적이고 독립된 존재인 ‘분리된 자아(separated self)’가 이상적인 모습으로 강조되며, 콜버그의 도덕단계에서도 가장 상위 단계에 속하는 모습으로 그려지지만, 돌봄윤리에서 전제되는 자아는 ‘관계적 자아 (the relational self)’ 혹은 ‘관계 안의 자아(the self in relationship)’이고, 이러한 여성적 자아의 모습은 보편윤리를 기반으로 하는 콜버그의 도덕단계에서는 저평가되어, 오랫동안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도덕적으로 열등하다는 관념이 형성되어 왔다(조주영,

2008; 2009). 이에 대해 길리건은, 여성적 도덕적 특성과 남성적 도덕적 특성이 다르므로, 이를 우월하다거나 열등한 것으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서로 다른 도덕성으로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동안은 정의의 윤리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도덕성을 협소하게 정의해 왔다고 주장하였다(김동희, 2001).

그러나 최근에는, 이처럼 여성의 윤리와 남성의 윤리가 돌봄 윤리와 보편윤리라는 차이가 있다는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성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감정을 지닌 감성적 존재이고, 돌봄 윤리에서 강조되는 관계중심, 공감, 감정이입, 관심, 유대 등은 여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도 가져야 하는 인간의 보편적 특성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벤하비브(Benhavib, 2008, 446)가 말하듯 모든 인간은 이미 '타자와의 상호작용'속에 있다는 점에서, 돌봄의 '사회적 보편성'을 인정하고, 돌봄윤리를 젠더를 넘어선 인간존재의 보편윤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트론토(J. C. Tronto)나 헬드(V. Held) 같은 학자들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이정은, 2009).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돌봄을 기존의 남성중심적, 개인중심적인 가치관이 가져온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더 나아가서는 인간 삶 전체에 적용되는 사회적 보편성을 가지는 돌봄이 정의보다 더 포괄적이고 높은 상위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헬드(1995, 142)는 “정의는 도덕적 최소한도를 다루고, 보살핌은 의무의 층위를 넘어서서 보다 상위의 것을 다룬다”고 말한다(김동희, 2001; 이정은, 2009).

그렇다면, 돌봄 윤리에서 정의되는 '돌봄'은 무엇인가? 헬드는 돌봄은 특정한 타인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고 “돌봄윤리의 핵심은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구체적인 타인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배려하는 외면할 수 없는 도덕적 특징”이라 하였다(헬드, 2017, 29). 나아가 키테이(Kittay, 1999, 29-48)는 돌봄은 그저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때로는 희생이 동반되는 '이타적인 관계'이며 '사랑의 노동'이라고 강조한다. 트론토는 이처럼 타인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는 돌봄의 의미를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로

확장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장 일반적인 수준에서 우리는 보살핌을 일종의 활동으로 간주되는 것이라고 제안한다. 그것은 우리가 가능한 한 우리의 '세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세계'를 보전하고, 지속시키고, 개선하기 (repair) 위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활동이다. 그 세계는 우리의 신체, 우리의 자아,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포함한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삶을 떠받치는(life-sustaining) 복잡한 그물망 안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한다(Tronto, 1993, 101)

트론토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돌봄은 이제 더 이상 사적영역에 제한되지 않고, 그 관심과 보살핌의 영역은 공적 영역으로 확장되며, 돌봄은 도덕적 행위이면서 동시에 기존의 정치적 사회적 제도들의 변화를 요구하고 재구성하는 정치적 행위가 된다. 이 시점에서 돌봄 윤리는 보편윤리로서의 정당성을 가지게 되며, 헬드가 주장하는 '복지권'과 밀접하게 연계되는데, 헬드에게 복지권은 "생존하기 위해 자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원을 보증하는 기본권이다"(Held, 1995, 129). 현대사회는 정의에 근간을 둔 근대사회에서 복지사회로 변모하고 있고, 돌봄 윤리는 정의윤리에서처럼 '공정성을 바탕으로 하는 정의'에 기초하여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존엄한 인간의 필요'에 대하여 안타까운 심정으로 '보살핌'을 제공하기에, 돌봄윤리는 복지사회에 더욱 부합하는 가치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 기존의 사회의 가치체계와 구조속에 존재하는 사회적 부조리와 착취를 부도덕한 것으로 규정하며 정치적, 사회적 제도들의 변화를 도모한다(이정은, 2009; 조주영, 2008; 2009).

이러한 돌봄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며, 성경의 기록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의깊게 바라보고 들으시며 위로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보살피 주시고, 함께 거하시며 동행해 주시는 사건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의 친밀한 관계 안으로 부르셨

고, 이는 성육신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구속의 사건으로 완성된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과 선행적 은총에 대한 인간의 반응과 순종으로 그려지는 상호주관적 관계경험이다. 이러한 돌봄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시절동안 이 땅에서 하신 사역들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김기철, 2017). 예수님께서서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나는 한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마 22:37-39; 막 12:29-31; 눅 10:27-28),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돌봄(눅 10:29-37)의 메타포로 답하셨다. 이 비유에서 돌봄의 핵심은 편견과 갈등을 뛰어넘어, 강도를 만나 고통하는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생명이 귀하기에 방치하고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이다. 또한 목회돌봄은 시편 23편에서 그려지는 목자 (shepherd)의 이미지에서 시작된다(이희철, 2020, 490). 윌리엄 클레브시(William A. Clebsch)와 찰스 재클(Charles R. Jaekle)은 목회돌봄을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기독교를 대변하는 사람이 치유, 지지, 가이드, 화해를 제공하는 사역”(1964, 4)으로 정의하였다.

나아가, 고통에 처한 개개인을 향한 목회돌봄은, 트론토가 제시했던 ‘돌봄’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시 146:6-10)와 관련하여 바라보았을 때, 공적영역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찰스 거킨(Charles Gerkin)은 윌리엄과 찰스가 제시한 돌봄의 네가지 기능에서 특별히 가이드의 개념을 지배적인 기능으로 놓고, 가이드는 단순히 개인적 문제 뿐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이슈들에 관심을 가지고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으로, 이처럼 사회적 시대적 문제에 대하여 응답하려는 노력이 돌봄 목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Gerkin, 1997, 114). 이러한 돌봄 목회는 디트리히 본 회퍼의 디아코니아, 교회의 섬김의 강조와 직결된다. 본 회퍼에게 있어 교회의 돌봄은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하여서 공동체성에 기초하여 윤리적으로 응답하고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것이다(이희철, 2020). 현대 북미의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이제 개교회 안에서 개인적 문제들과 이슈들에 대한 돌봄 뿐 아니라

재난, 경제위기, 인종차별, 기후변화와 생태문제등의 사회적 문제와 이슈에 대해서도 응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통해, 공동체를 기반으로 타인과 사회, 나아가 세계를 향하여 관심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행하는, 돌봄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돌봄목회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위기상황을 맞은 이 시대의 긴급한 필요와 요구에 대한 적절한 목회신학적 응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시대속에 심화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과 돌봄의 부재, 가족갈등과 폭력등의 위기상황 속에 있는 여성들에게 이러한 돌봄목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독교교육적 적용점들을 제안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돌봄목회’를 통해, 교회와 목회자들은 한편으로는 고통받는 개개인의 생명의 존엄과 실존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과 심정으로 그들의 삶의 사회적, 심리적 상황을 함께 바라봐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심정적 물질적 영적 돌봄을 제공하고 함께 해 주는 기존의 교회 공동체사역을 지속하고 더 격려해야 할 것이다. 교회교육에서는 이를 위해, ① 일차적으로는 교회내에서 가정폭력과 자살충동등 심리 정서적 고통속에 처한 여성들을 구체적으로 돕기위한 지지그룹 (support group/ self help group)을 형성하여 고통속에 고립되지 않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상호지지가 될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해 주고, ② 이차적으로는 제자훈련을 통하여, 이러한 고통속에 있는 각 지체의 상황을 공유하며 비밀보장의 안전한 환경속에 함께 기도하면서 장단기적으로 실제적인 도움 (구제, 상담, 직장소개, 자녀 돌봄 제공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소그룹 기도 공동체들이 형성되도록 교육하고 실행할 수 있다. ③ 나아가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교육목회 속에서 타인들의 고통에 민감하고,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소통능력, 공동체성에 기본을 둔 책임감과 윤리성 등의 개인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실천적인 다양한 공동체 돌봄 훈련 프로그램들을 개발, 제공하고 실행할 수 있다.

둘째, 여성에게만 과중된 돌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정이 생활공

동체이자 사랑공동체, 그리고 성경의 교육에 관련한 기본 지침이 되는 쉼마(신 6:4-9)를 고백하는 교육공동체임을 강조하고, 돌봄,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양육은 여성에게만 국한된 책임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 부모가 함께 참여해야 하는 하나님께 받은 소명과 책임이며, 나아가 돌봄은 가치없고 의미 없는 노동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삶을 보살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일, 감사할 일이라는 가르침이 교회를 통해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셋째, 성적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여성 실업의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세계를 보전하고, 지속시키고, 개선하기 위한' 보편윤리로서의 돌봄의 의미와 공공성을 선교적 사명과 연계하여 교육하며, 이 시대의 사회와 문화, 정치 속에 실현해 가는 공교회적 노력이 교육목회적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가르쳐지고 실천될 필요가 요청된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수면위로 떠오른, 경제적 불평등, 성 불평등, 돌봄과 가사노동의 독박으로 인한 과도한 부담, 그리고 가정폭력의 문제들은 더 이상 여성 개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는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한 교육목회 커리큘럼 가운데 불평등, 폭력, 고통, 정의 등에 관련된 기존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대하여 질문과 도전을 제기하고, 성경적으로 바람직한 변화에 대한 논의, 디트리히 본 회퍼의 디아코니아(교회의 섬김) 개념 등 시대와 역사의 부름속에 교회의 역할에 대한 토론과 성찰, 바람직한 실행을 이끌어 내는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제공되도록 노력할 수 있다.

코로나 19의 위기속에 고통하는 불신자들이 바라보았을 때, 교회가 이웃의 생명보다 자신들의 종교적 섬김을 더 강조하여, 진정한 이웃으로 한국사회와 함께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비추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돌봄목회와, 디아코니아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돌봄을 위한 교회교육을 통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고통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사랑의 이웃이 되어줄 때, 하나님의 마태복음 25장 31-40절에서 말씀하시는 숨은 사랑에 대한 하

나님의 기뻐하심과 인정하심이 한국교회와 함께 하실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기철 (2017). 성서에 드러난 목회돌봄의 정체성. **장신논단**, 49(1), 331-357.
- [Kim, G. C. (2017). A Dominant Characteristic of Pastoral Care in the Bible: The Intersubjective Caring Relationship.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49(1), 331-357.]
- 김난주 (2020). 코로나19의 여성 노동에 대한 영향과 정책과제. **노동N이슈**, (2020-10), 1-19.
- [Kim, N. J. (2020). The impact of COVID-19 on women's labor and policy tasks. *LaborNIssue*, (2020-10), 1-19.]
- 김동희 (2001). 캐롤 길리건의 돌봄의 윤리 연구. **한국여성신학**, 47, 109-126.
- [Kim, D. H. (2001). Carol Gilligan's ethical study of care, *Journal of Korean Feminist Theology*, 47, 109-126.]
- 김서현 (2020.09.17). 코로나 우울, 20대 여성에게 더 가혹하다. 여성신문, 2021.10.20.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03>에서 인출.
- [Kim, S. H. (2020.09.17.). COVID-19 depression is harsher for women in their 20s. *Womennews*.]
- 문정화·김수진·성기옥 (2021). 코로나19 두려움과 영향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32(1), 285-307.
- [Kim, S. J., Moon, J. H., & Seong, K. O. (2021). An exploratory study on COVID-19 phobia and influencing factors. *Journal of Social Science*, 32(1), 285-307.]
- 김영란 (2020.07.10). 코로나19 시기 가족생활과 가족 정책 의제.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최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의 변화와 정책과제 토론회. 1-54.
- [Kim, Y. R. (2020.07.10.). Family life and family policy agenda during the COVID-19 period. Presentation for the debate on family changes and policy tasks caused by COVID-19. held by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1-54.]

김지연 (2021.05.13). 코로나19 고용충격의 성별 격차와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KDI), 2021.10.20.

https://www.kdi.re.kr/forecast/forecasts_outlook_view.jsp?pub_no=17070&art_no=3265 에서 인출.

[Kim, J. Y. (2021.05.13.). Gender gap and implications of COVID-19 employment shock. *Korea Development Institute*.]

김현미 (2020). 코로나 시대의 '젠더 위기'와 생태주의 사회적 재생산의 미래. **젠더와 문화, 13(2)**, 41-77.

[Kim, H. M. (2020). 'Gender crisi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future of ecological social reproduction. *Gender and Culture 13(2)*, 41-77.]

류인하 (2020.12.27). 코로나19 이후 '돌봄공백'... 직장맘 줄되사 원인됐다. **경향신문**, 2021.10.20.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012271131001> 에서 인출.

[Ryu, I. H. (2021.10.20.). After COVID-19, "care gap"... It was the cause of the resignation of the working mom. *Kyunghyang Shinmun*]

백유진 (2021.10.01). 20대 여성 자살률, 전 연령대 통틀어 가장 높아. **데일리 굿뉴스**, 2021.10.20.

http://www.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119179에서 인출.

[Baek, Y. J. (2021.10.01.). The suicide rate among women in their 20s and all age groups is the highest. *Daily Good News*.]

보건복지부,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2021.01.1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2020년 국민 정신건강실태조사. 2021.10.20.

http://ksts.kr/wp-content/uploads/2021/01/KSTSS21-01-18-COVID-19-%EA%B5%AD%EB%AF%BC%EC%A0%95%EC%8B%A0%EA%B1%B4%EA%B0%95%EC%8B%A4%ED%83%9C%EC%A1%B0%EC%82%AC_4%EC%B0

A8.pdf 에서 인출.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f South Korea & Korean Society of Traumatic Stress Studies (2020.01.18.). *Coronavirus infection-19 2020 National Mental Health Survey.*]

송아영 (2021). 코로나19로 가려진 얼굴, 가정폭력. **월간 복지동향**, 267, 51-53.

[Song, A. Y. (2021). A face covered by COVID-19 and domestic violence. *Monthly Welfare Trend*, 267, 51-53.]

에바 F. 키테이 (2017). **돌봄: 사랑의 노동**. 김희강, 나상원 역. 서울: 박영사.

[Kittay, E. F. (2017). *Love's labor: Essays on women, equality and dependency.* Kim, H. K. & Na, S. W., Trans. Seoul: Parkyoungsa.]

여성가족부 (2020. 10). 2020년 9월 여성고용동향. 2021.10.20.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9217> 에서 인출.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20. 10). Employment trend for women in September, 2020.]

여성가족부 (2021.03.04).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대책. 2021.10.20.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620에서 인출.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20.03.04). Measures to recover from the COVID-19 employment crisis for women.]

연합뉴스 (2021.10.01). 무엇이 20대 여성을 절박하게 하나... 급증하는 극단선택. 2021.10.20. <https://www.yna.co.kr/view/AKR20210930161600002>에서 인출.

[Yonhap News Agency (2021.10.01.). What makes a woman in her 20s desperate... The increasing number of extreme choice.]

이윤영 (2021. 여름호). 성인지적 코로나19 회복 전략의 국제 현황과 과제: 더 나은 재건을 위하여.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KWDI), 62-73. 2021.10.20.

<https://www.kwdi.re.kr/inc/download.do?ut=A&upIdx=127833&no=1>에서

인출.

- [Lee, Y.Y. (2020, Summer). International status and challenges of adult cognitive COVID-19 recovery strategy: for better reconstruction.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62-73.]
- 이정은 (2009). 현대 여성주의 철학에서 보살핌 윤리. **한국여성철학**, 11, 143-171.
- [Lee, J. E. (2009). The ethics of caring in the recent philosophy of feminism. *Korean Feminist Philosophy*, 11, 143-171.]
- 이희철 (2020). 돌봄: 목회 돌봄에 근거한 목회상담의 미래 전략.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16, 489-514.
- [Lee, H. C. (2020). Pastoral Care: The Future Plan of Pastoral Counseling According to Pastoral Care. *Korean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116, 489-514.]
- 임윤옥 (2020). 코로나19 여성노동자 '조용한 학살'. **여성우리**, (64), 6-9.
- [Yim, Y. O. (2020). COVID-19 Female Workers "Quiet Massacre". *Women We-ness*, (64), 6-9.]
- 조주영 (2008). 새로운 도덕 패러다임으로서의 보살핌 윤리. **한국여성철학**, 9, 103-125.
- [Cho, J. J. (2008). Care Ethics as a new moral paradigm- Focusing on Hekman's interpretation of Gilligan's view. *Korean Feminist Philosophy*, 9, 103-125.]
- 조주영 (2009). 캐롤 길리건(Carol Gilligan): 도덕윤리로서의 보살핌. **여/성이론**(21), 72-84.
- [Cho, J. J. (2009). Carol Gilligan: Care through ethic and moral. *Journal of feminist theories and practices*, (21), 72-84.]
- 허라금 (2018). 관계적 돌봄의 철학-필요의 노동을 넘어 정치적 행위로. **사회와 철학**, 35, 67-90.
- [Huh, R. K. (2018). The philosophy of relational care - Beyond labor of needs to political action. *Korean Society for Social Philosophy*, 35, 67-90.]

- 홍혜은 (2020). 코로나 위기로, 20대 여성자살과 그 미봉책들, **여성이론**, 43, 28-48.
[Hong, H. E. (2020). COVID-19 crisis theory, suicide of a woman in her 20s, and the stopgap measures. *Journal of feminist theories and practices*, 43, 28-48.]
- Beauvoir, S. de. (1996). **제2의 성**, 조홍식 역. 서울: 을유문화사. (원저 1949 출판)
[Beauvoir, S. de. (1996). *(Le)deuxieme sexe* (Cho, H. S., Trans.). Seoul: Eulyoo Publishing. (1949).]
- Benhabib, S. (2008). **비판 규범 유토피아**. 정대성 역. 서울: 울력.
[Benhabib, S. (2008). *Critique norm and Utopia: a study of the foundations of critical* (Jung, D. S., Trans.). Seoul: Ulryok.]
- Brooks, S. K. et al. (2020). The psychological impact of quarantine and how to reduce it: rapid review of the evidence. *The Lancet*, 395 (10227), 912-920.
- Chipare, M. A. (2021). The hidden monster of domestic violenc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resource limited settings: a call to action. *Medical Journal of Zambia*, 48(1), 1-3.
- Clebsch, W. A. & Charles R. J. (1964). *Pastoral care in historical perspectiv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Comas, C. & Carreras, E. (2020). Covid-19 and pregnancy: An opportunity to correct an historic gender bias. *Journal of Medical Virology*, 1-3.
- Ebert, C. & Steinert, J. I. (2021). Prevalence and risk factors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children during COVID-19 Germany. *Bull World Health Organ*, 99, 429-438.
- Every-Palmer, S. et al. (4 Nov 2020). Psychological distress, anxiety, family violence, suicidality, and wellbeing in New Zealand during the COVID-19 lockdown: A cross-sectional study. *PLoS One*, 15 (11), 1-19.
- Gerkin, C. (1997). *An introduction to pastoral care*. Nashville, TN: Abingdon Press.

- Gilligan, C. (1994). **심리이론과 여성의 발달**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an's development). 허란주 역. 서울: 철학과 현실사.
- González-Sanguino C. et al. (July, 2020). Mental health consequences during the initial stage of the 2020 Coronavirus pandemic (COVID-19) in Spain. *Brain Behavior and Immunity*, 87, 172-176.
- Handley, E. (22 July 2020). 'COVID-19 Pandemic leads to rise in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in Asia Pacific. ABC News, Retrieved from <https://www.abc.net.au/news/2020-07-22/violence-againstwomen-and-girls-asia-pacific-covid-19-report/12476030> (Accessed: 20 October 2021)
- Held, V. (1995). The meshing of care and justice. *Hypatia*, 10 (2), 128-132.
- Held, V. (2017). **돌봄: 돌봄윤리**. 김희강·나상원 역. 서울: 박영사. (원저 2006 출판)
[Held, V. (2017). *The ethics of care: Personal, political, and global* (Kim, H. K. & Na, S. W, Trans.). Seoul: Parkyoungsa. (2006)]
- Holmes, E. A. et al. (2020). Multidisciplinary research priorities for the COVID-19 pandemic: a call for action for mental health science. *The Lancet Psychiatry*, 7, 547-560.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20 August 2021). World employment and social outlook 2021: Trends 2021. Retrieved from https://www.ilo.org/global/research/global-reports/weso/trends2021/WCMS_795453/lang-en/index.htm (Accessed: 20 October 2021).
- Kittay, E. F. (1999). *Love's labor*. New York: Routledg.
- Krentz, M. et al. (21 May 2020), 'Easing the COVID-19 burden on working parents,' *Boston Consulting Group*. Retrieved from <https://www.bcg.com/en-kr/publications/2020/helping-working-parents-ease-the-burden-of-covid-19> (Accessed: 20 October 2021).
- Lee, J., Chin, M., & Sung, M. (2020). How has COVID-19 changed family life and well-being in Korea?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51(3-4), 301-313.

- Lian, B., & Yoon, S. (2020). Burdens, resilience, and mutual support: A comparative study of families in China and South Korea amid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51(3-4), 338-346.
- Mansharamani, B., & Kishor, M. (2020). Women's mental health and domestic violence in India during COVID-19 pandemic.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 Allied Sciences*, 10(1), 92-94.
- Oxfam international (29 April 2021). COVID-19 cost women globally over \$800 billion in lost income in one year. Retrieved from: <https://www.oxfam.org/en/press-releases/covid-19-cost-women-globally-over-800-billion-lost-income-one-year> (Accessed: 20 October 2021).
- Oxfam media briefing. (9 July 2020). The hunger virus: How COVID-19 is fuelling hunger in a hungry world. Retrieved from <https://www.oxfamamerica.org/explore/research-publications/hunger-virus-how-covid-19-fueling-hunger-hungry-world/> (Accessed: 20 October 2021).
- Oxfam media briefing. (9 July 2021). The hunger virus multiplies: deadly recipe of conflict, COVID-19 and climate accelerate world hunger. Retrieved from <https://www.oxfamamerica.org/explore/research-publications/the-hunger-virus-multiplies/> (Accessed: 20 October 2021).
- Oxfam survey (18 June 2020). Close to half of women are feeling more anxious, depressed, isolated, overworked or ill because of increased unpaid care work caused by the pandemic. *Oxfam international*, Retrieved from <https://www.oxfam.org/en/press-releases/close-half-women-are-feeling-more-anxious-depressed-isolated-overworked-or-ill> (Accessed: 20 October 2021).

- Peraud, W., Quintard B., & Constant A. (2021). Factors associated with violence against women following the COVID-19 lockdown in France: Results from a prospective online survey. *PLoS ONE* 16(9), 1-11.
- Petzold, M. B. et al. (2020). Risk, resilience, psychological distress, and anxiety at the beginning of the COVID - 19 pandemic in Germany. *Brain & Behavior*, 10 (9), 1-10.
- Sain, S. & Dey, I. (2021). An observational study to assess anxiety disorder among women during COVID-19 pandemic. *Journal of Clinical & Diagnostic Research*, 15(3), 26-30.
- The World Bank (2021).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June 2021).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Retrieved from <https://www.worldbank.org/en/topic/poverty> (Accessed: 20 October 2021).
- Tronto, J. C. (1993). *Moral boundaries: A political argument for an ethic of care*, New York: Routledge.
- UN (7 May 2020). WHO warns of surge of domestic violence as COVID-19 cases decrease in Europe. Retrieved from <https://unric.org/en/who-warns-of-surge-of-domestic-violence-as-covid-19-cases-decrease-in-europe/> (Accessed: 20 October 2021).
- UN Women. (2020). Policy brief: The impact of COVID-19 on women. Retrieved from <https://www.unwomen.org/en/digital-library/publications/2020/04/policy-brief-the-impact-of-covid-19-on-women#view> (Accessed: 20 October 2021).
- UN Women. (6 October 2021). What does gender equality look like today? Retrieved from <https://www.unwomen.org/en/news/stories/2021/10/feature-what-does-gender-equality-look-like-today> (Accessed: 20 October 2021).

- UNFPA (11 March 2021). Impact of COVID-19 on Family Planning: What we know one year into the pandemic. Retrieved from https://www.unfpa.org/sites/default/files/resource-pdf/COVID_Impact_FP_V5.pdf (Accessed: 20 October 2021).
- Vranda, M. N. (2021). Tele-case work consultation to woman survivor of domestic violence during COVID-19 pandemic. *Indian Journal of Psychological Medicine*, 43(5), 446-450.
- WHO Coronavirus (COVID-19) Dashboard, Retrieved from <https://covid19.who.int/> (Accessed: 20 October 2021).
- Yari, A. et al. (2021). Frequency and determinants of domestic violence against Iranian wome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national cross-sectional survey. *BMC Public Health*, 21, 1-10.
- Zhang, H. (September 2020). The influence of the ongoing COVID-19 pandemic on family violence in China. *Journal of Family Violence*, 1-11.

Abstract

**Crisis in Women during COVID-19 Pandemic
and Pastoral Theological Reflection on Care :
Christian Educational Approach**

Soo Young Lee

Lecturer, Hoseo University

As can be seen from the statement by the UN Secretary-General that “COVID-19 is a crisis with a woman’s face,” women have experienced great crisis, pain, and difficulties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This study examined the situations of women through statistical data and research studies. Through this study, economic, socio-cultural, and psycho-emotional aspects were dealt with in detail, and how these issues appeared in relation to “caring” were examined. In addition, as a response of the church to these problems and crises, pastoral theological reflection was promoted through “Ethics of Care” and “caring ministry”. The “caring ministry” of the church extends not only to personal care within the church, but also to social, cultural, economic, political, and ecological issues, and the church has a missionary mission to respond to these issues related to disasters with a public nature. Furthermore, through educational ministry, the change of values and mindsets on “care” and inequality and Diakonia, the loving care of the church community, should be encouraged.

《 **Keywords** 》

COVID-19, Pandemic, Crisis, Women, Gender Inequality, Care, Ethics of Care, Caring Ministry, Pastoral Care, Christian Education

- 투고접수일 : 2021년 11월 24일
- 심사완료일 : 2021년 12월 30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12월 30일